

근대 불교계와 만암 송종헌의 교육 활동

한동민*

• 목 차 •

- I. 머리말
- II. 백양사 광성의숙의 설립과 의의
 - 1. 백양사 광성의숙의 설치
 - 2. 광성의숙 졸업생과 백양사 포교활동
- III. 일제강점기 중앙교계에서의 역할과 교육활동
 - 1. 중앙불교계 진출과 활동
 - 2. 불교전수학교와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취임과 활동
 - 3. 보성고보 인계 반대 운동
- IV. 해방 후 백양사의 교육활동
 - 1. 백양사 한글강습회 개설
 - 2. 정광중학교 설립
- VII. 맺음말

* 수원화성박물관장.

© 『大覺思想』 제33집 (2020년 6월), pp.175-225.

한글요약

만암 송종헌은 근대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정을 역임하였고, 백양사를 중흥시킨 인물로 추앙받고 있다. 만암 송종헌의 불교계에서 역할과 업적 가운데 하나가 불교계 교육사업 이라 할 수 있다.

만암 송종헌은 1910년 백양사에 근대적 학교인 광성의숙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당시 백양사 주지는 김환웅 스님이었지만 학감(교감)으로 실질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이끌었다. 광성의숙은 짧은 기간 운영되었지만 이후 백양사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이들 졸업생들은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백양사를 근대적으로 발전시킨 주역이었다.

또한 만암 송종헌은 1916년 백양사 주지가 된 이래 20년간 백양사를 이끌며 중앙불교계를 대표하는 승려로 활동하였다. 특히 일제강점기 중앙불교계의 총무원 학무부장, 교무원 교학부장으로 활동했다. 이는 만암 송종헌의 위상과 역할이 학술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에 장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특장은 이후 불교전수학교 및 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게 만들었다. 그는 불교학교 교장시절 전문학교 승격을 이끌었고, 학교 교지 『일광』을 발간하는 등 학교 위상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학교 운영의 내실을 통해 불교전문학교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으로 만들었다. 또한 불교계가 운영하던 보성고등학교를 다른 재단으로 인계하는 것을 반대함으로써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해방 후 1945년 11월부터 백양사 한글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해방공간에서 불교계가 보인 가장 빠른 대응 가운데 하나였다. 한글강습회를 통해 상설 교육기관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한글강습회의 경험은 이후 학교설립으로 나타났다. 즉 만암 송종헌의 발의로 호남지역 주요 사찰에 의해 1946년 3월 목포에 정광중학교를 설립하였다. 이후 광주 송정리로 이전 현재 정광중고등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만암 송종헌의 교육활동은 불교계 발전에 커다란 역할과 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

주제어

만암 송종헌, 백양사 광성의숙, 불교전문학교, 백양사 한글강습회, 보성고
보, 정광중학교

I. 머리말

만암 송종헌(宋宗憲, 1871~1956)은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근대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더욱이 백양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백양사의 증흥조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만암은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1889년 백양사 취운도진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였다. 백양사 불교 전문강원에서 환응 스님을 강사로 수업을 받았고, 이후 해인사 등지에서 강사로 활동하였다. 환응스님의 요청으로 1910년 백양사 청류암에 광성의숙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1916년 백양사 주지로 취임한 이래 20년간 주지를 역임하며 백양사를 증창하고 백양사의 중심인물로 활동하였다. 또한 1910년대 이래 중앙불교계에 진출하여 교무원 교학부장 등을 역임하며 학술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다. 또한 1930년대 중앙불교전수학교와 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학교 교육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였다. 그런 만큼 근대 불교사에서 만암 송종헌의 가장 대표적 업적 가운데 하나로 교육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만암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실상 근대 백양사의 증흥조로 일컫는 만암 송종헌은 근대불교사에서 위상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해방 후 한국불교의 교정과 조계종 종정을 역임한 인물이지만 태고종에서 더욱 크게 기림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교정과 종정을 역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만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이는 불교정화와 관련하여 조계종의 입장과 다른 편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근대 백양사 관련 연구와 만암 송종헌에 대한 연구는 백양사 강학과 종조 문제 및 불교정화 관련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인용되는 정도라 할 수 있다.¹⁾ 그나마 2011년 10월 28

1)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의 강학 전통과 白羊寺 강원의 역사」, 『불교학연구』 25, 2010; 김광식, 「고불총림과 불교정화」,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일 ‘만암대종사 생애와 사상’ 학술세미나가 백양사와 동국대 종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4편의 논문이 발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²⁾ 이에 만암에 대한 연구가 기지개를 켜면서 이후 만암과 근대 백양사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³⁾

만암 송종헌은 선승으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고 명료한 원칙을 중시했던 스님이다. 원칙론자 만암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설문이 있다. ‘조선 금일의 불교도는 어떠한 방면에 역량을 집중함이 옳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송종헌 중앙불전 교장의 답변은 “불교도는 먼저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은 후에 각기 그 직책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칙론적인 답을 내놓고 있다.⁴⁾ 포광 김영수는 포교, 만해 한용운 역시 교육과 포교(역경), 민세 안재홍은 정화운동과 한글화, 민중화로 답하고 있거나 혹은 나름의 철학과 내용을 길게 답하고 있는 반면 만암 송종헌의 의 그것은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교육과 관련하여 만암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논설을 쓰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따라서 만암 스님의 교육에 관한 사상과 철학을 온전하게 밝히

김상영, 「일제강점기 불교계의 종명 변화와 종조·법통의식」, 『불교근대화와 전개와 성격』,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6; 김상영, 「정화운동시대의 종조 갈등문제와 그 역사적 의의」,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8; 이재현, 「미군정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분열」, 『불교정화운동의 재조명』,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8; 김순석,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불교 태고종의 성립과정」, 『순천향인문과학논총』 22, 2008. 만암을 최초로 종합적인 연구대상으로 시도한 글로는 박애숙, 「만암 종헌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이 있다.

2) 당시 발표된 4편의 논문은 김상영, 「만암 종헌의 생애와 沙門像」; 김용태, 「백양사 강학의 계승과 만암의 전통인식」; 김광식, 「만암의 禪農一致 사상」; 한동민, 「근대 불교계와 만암 송종헌의 교육활동」 등이다.

이번 논문은 그때 발표된 논문을 대폭 수정, 보완한 것이다.

3) 김순석, 「해방공간 불교계의 과제와 만암 송종헌의 ‘불교계 정화인식」, 『태동고전연구』 27, 2011; 김상영, 「曼庵 宗憲의 생애와 활동 - 1927년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19, 2013; 김광식, 「만암의 불교정화관」, 『선문화연구』 14, 2013.

4) ‘二大問題’, 『一光』 3, 1931. 3, p.47.

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만암의 문집 가운데 거의 유일무이한 교육에 대한 생각을 끄집어 내보면 다음이 있다.

은갖 設施 중에서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은 교육사업보다 더 중한 것이 없다.(凡百施設中 人生要務 莫先於教育也)⁵⁾

이러한 생각, 어떠한 사업보다 교육 사업이 중요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지니고 평생을 불교계 교육 사업에 헌신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설과 언급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몸소 실천하고 후진들에게 보여주었던 삶을 통해 만암 송종헌의 교육활동을 살펴보는 것으로 자료가 없는 현실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백양사 광성의숙의 설립과 의의

1. 백양사 광성의숙의 설치

만암 송종헌이 1907년 해인사의 요청으로 강사 생활을 하다가 본사인 백양사로 돌아온 것은 1910년의 일이다. 만암은 전통강원에서 강백으로 이름을 떨쳐 사교와 대교의 학인대중이 늘 50~60명에 이를 정도였다고 한다. 1910년 백양사에 돌아온 뒤 환응(幻應) 스님을 방장으로 모시고 스스로 학감이 되어 백양사 청류암(清流庵)에 광성의숙(廣成義塾)을 설치하였다. 이는 일제의 강점이 현실화된 시대적 상황에서 전통식 강원교육만으로는 불교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전통강원에 더하여 신식학문을 보충 강화했던 것이다.

그런데 광성의숙을 백양사 본사가 아닌 산내 암자인 청류암에 설치한

5) ‘東愚鄭純朝先生紀功碑’, 『雜著』, 『曼庵文集』, 1997, p.291.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1916년 조사된 백양사와 산내 암자의 건물과 토지 현황을 통해 광성의 숙이 왜 청류암에 설치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⁶⁾

<표 1> 1916년 백양사 및 산내 암자 건물과 토지 현황

사암	건물 (평수)	소계	경전류	토지 (結)
백양사	극락보전(14) 명부전(5) 瞻星閣(23) 妙蓮堂(15) 門舍(1) 雙鷄樓(14)	72평	金剛經板(12)	5,109
清流庵	法殿(41) 관음전(30) 眞影閣(30) 寮舍(36) 문사(5)	142평	화엄경(81) 법화경(7) 원각경(6) 반야경(2) 능엄경(5) 기신론(4)	3,034
雲門庵	법전(48) 翼廊(9) 칠성각(9) 요사(30) 我淨寮(14) 王后閣(2) 문사(5)	117평	화엄경(70) 화엄론(12) 玄談(8) 법화경(7) 원각경(6) 반야경(2) 능엄경(10) 기신론(4) 會玄記(10)	6,078
藥師庵	법전(45) 문사(4)	49평		
白蓮庵	법전(26) 익랑(6) 요사(30)	72평		
靈泉庵	법전(9)	9평		
天真庵	법전(54) 익랑(3) 요사(3)	60평		
地藏庵	법전(40) 요사(18) 문사(3)	61평		
金剛庵	칠성각(1) 요사(12)	13평		
西陽庵	요사(12)	12평		

청류암은 본사인 백양사와 비교해서 건물 규모면에서 월등히 우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즉 백양사보다 2배에 가까운 건물규모였던 점에서 광성의숙이 청류암에 설치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또한 청류암에는 경전도 상당량 비치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물론 운문암의

6) 朝鮮總督府 中樞院, 『白羊寺寺院土地建物等臺帳』, 1916. 3. 31.

경우 청류암보다 많은 경전들을 소장하고 있지만 건물에서 상대적으로 규모있는 건물이 적다는 점이다.

실제 광성의숙은 본사 백양사에 설치되는 것이 출입의 용이함과 행정적 편의 등에서 보다 효과적이겠지만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건물이 마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물의 규모와 경전의 소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류암이 보다 적당한 장소로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성의숙의 설립 취지나 목적을 잘 알 수 있는 문건은 전해오지 않아 당시의 광성의숙 설립의도를 구체적으로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시대적 요구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던 것 같다.

전통적인 불교 강원교육 방식을 혁신하여 불교경전 뿐 아니라 外典을 겸수하게 하여 세상의 형편을 알도록 하였다. 특히 구한국 시대에 편찬된 국사와 지리 과목을 넣어 나라와 국토에 대한 지식을 확대 심화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도록 한 것을 보면 전통적인 강원교육이 생각할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排日명사들을 수시로 출입하게 하여 광성의숙을 일종의 민족정신 함양장이 되도록 한 것은 스님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깊었음을 짐작하게 한다.⁷⁾

불교경전의 내전뿐만 아니라 국사와 지리 등 외전을 함께 공부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명사들을 초청해 강의를 맡게 했다는 점이다.

당시 광성의숙의 학인은 늘 50명 이상 100여 명에 달할 정도였다. 방장에는 환응 선백을 모시고 만암은 학감을 맡아 학무를 총괄하였다. 광성의숙 학도들은 학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어렵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게 한 경우는

7) 김상일, 「송만암 대종사」, 『曼庵文集』, 백양사 고불총림, 1997, pp.402-403.

없었다고 한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의식주 모두가 넉넉하기는 커녕 구차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환응 방장과 학감인 만암도 음식을 학도들과 똑같이 달게 먹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별실이 있었지만 큰 방에서 기거를 함께 하며 조금도 불편케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만암은 일상의 행사가 수양하던 때와 같이 조금도 다름없어 주위의 외경을 받았고 백양사 관할에 속한 30여 사암이 광성의숙 사업에 모두 호응하였던 것이다.⁸⁾ 「연보 약기」에는 특히 ‘排日명사들을 수시로 출입하게 하여 광성의숙을 일종의 민족정신 함양장’이 되도록 하였다고 적고 있다. 또한 “의숙은 일경에 의해 출판이 금지된 국사와 지리, 그밖에 민족정신을 고취하는 모든 서적을 임의로 배우며 읽을 수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이이었을까?

주목되는 것은 1912년 5월 『호국보경(護國寶鏡)』이라는 책자가 백양사 신현국(申鉉國) 이름의 유인본(油印本)으로 발간되었다. 서문은 김지현(金智玄)·이동석(李東錫) 그리고 발문은 김순호(金洵皓)가 쓴 국한문 혼용의 책자이다. 이는 담양 용화사의 묵담유물관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광성의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적어도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⁹⁾

신현국(申鉉國, 1869~1949)은 자는 사현(士賢), 호는 직당(直堂)이다. 아버지는 만균(萬均)이며, 어머니는 함평이씨(咸平李氏)로 설서(高緒)의 딸이다. 1876년(고종 13)에 외종조 이직서(李稷緒)에게 배우기 시작하고,

8) ‘年譜略記’, 『曼庵文集』, 백양사 고불총림, 1997, p.334.

9) 묵담(默潭, 1896~1981) 스님은 11세인 1906년 4월 14일 백양사 천경 순오선사에 의하여 출가하여 이듬해 1907년 10월 15일에 백양사 청류암에서 임종산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았다. 그리고 17세 되는 1912년 3월 20일 해인사 해명학교(海明學校)를 졸업하고 1912년 4월 15일부터 이듬해인 1913년 12월 20일 백양사 운문선원 금해 노화상에게 사미과와 사집과 수료하고 있다. 따라서 해인사 해명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온 뒤 1912년 백양사에서 발간한 『護國寶鏡』을 수중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묵담스님은 해인사 해명학교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광성의숙에서 배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881년에 광정현(郭鼎鉉)에게 수학하였다. 뒤에 박세화(朴世和)를 사사하였다. 1895년 명성왕후가 시해되자 의병을 일으키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05년에 스승 박세화가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가 적에게 잡혀 투옥되자 동문인 이수영(李守榮)과 함께 달려가 목숨을 걸고 의분(義憤)의 글을 써서 일본을 크게 꾸짖었다. 결국 그 일로 적에게 구금되어 대구에서 옥고를 치렀다. 1910년 8월 박세화가 순절한 뒤 여주 대포산(大布山) 아래에서 강학에 전념하며 많은 후진을 배출하였다. 저서로는『직당집』이 있고, 음성 충룡사(忠龍祠)와 청풍 병산영당(屏山影堂)에 배향되었다.

『호국보경(護國寶鏡)』을 발간한 신현국이 이와 동일인이라면 배일 명사들을 초빙하여 민족정신을 함양하고자 했던 만암 스님의 숭고한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해지는 것이다. 또한 서문을 쓴 김지현(金智玄)은 1921~1922년 해인사청년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추정된다.¹⁰⁾

한편 광성의숙의 강사 가운데 김종래(金鍾來, 1881~ ?)가 주목된다. 그는 1913년 조선선종호남포교소(朝鮮禪宗湖南布教所)¹¹⁾ 개교사(開教師)로 활동하기 전까지 광성의숙 한문교사로 재직하였다. 김종래는 12세에 충북 보은군 속리산 범주사에서 장경성(張鏡惺)을 은사로 출가하여 각지의 석덕과 강백에게 내외전의 교육을 받았다. 이후 순창군 구암사(龜岩寺) 강사, 산청군 대원사(大源寺) 강사, 장성군 백양사 강사 및 백양사 광성의숙 한문(漢文)교사로 교육에 종사하였다.¹²⁾ 특히 1911년 일본 조동종과의 연합맹약에 반대하여 활동했던 임제종 운동에 박한영(朴漢永)·한용운(韓龍雲)·진진웅(陳震應)·김경운(金擎雲)·송종헌 등과 함께 주동자

10) ‘陝川聯合大講演會’, <동아일보> 1921. 5. 23.; ‘陝川靑年聯合講演’, <동아일보> 1922. 5. 15.

11) 백양사에서 운영하였던 全州布教所로 추정된다. 1914년 <포교규칙> 공포 이전의 포교소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지만 이후 김종래는 백양사 전주포교소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田中正剛, 『朝鮮紳士寶鑑』, 조선출판협회, 1912, p.242.

가운데 한 명이였다. 이러한 이력의 소유자였던 김종래가 광성의숙 강사였다는 점은 만암이 배일강사를 다수 초청하였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광성의숙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에서 광성의숙의 상황을 해인사 해명학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광성의숙의 설립은 해인사 강사를 마치고 돌아온 만암 송종현에 의해서 시도된 것이고, 해인사 해명학교의 운영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암이 본격적으로 교육에 힘을 쏟기 시작할 때는 해인사에서 강사생활을 마치고 본사인 백양사에 돌아온 1910년부터였다.

해인사에는 원래 1906년 명립학교(明立學校)가 있었으나 곧 해명학교(海明學校)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해명학교가 1908년 11월 개설되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¹³⁾ 1906년 명립학교로 개설하였다가 1907년 의병전쟁으로 산중의 사찰에서 운영하던 학교들이 일시 폐쇄되고, 일본인 강사들이 퇴출되었다가 1908년 다시 개설되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 1908년말 다시 개설하면서 해명학교로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해인사 해명학교는 학생 48명으로 학력의 정도에 따라 1학년 갑·을반과 2학년으로 나누었다. 1학년 학생은 12~17세, 2학년 학생은 17~22세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해명학교는 2년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명학교 교사는 해인사 승려로 충원하였는데 4명이 분담하여 교수하였다. 교과목은 불교·국어·한문·일어·수신·산술·체조였다. 도서 및 이과(理科)는 과정표에 있어도 이를 가르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교과서는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학부(學部)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교실은 해인사 궁현당(窮玄堂)을 사용하였는데, 교사용 책상 이외에 학생들

13) 靑柳綱太郎, 『朝鮮宗敎史』, 1911, p.64.

은 책상 없이 꿰어앉아 수업을 받는 실정이었다. 당시 이고경(李古鏡) 스님은 1910~1912년까지 해명학교 불교강사로 활동하였는데, 묵담스님이 1912년 3월 20일 해인사 해명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이때 함께 했던 셈이다.

따라서 광성의숙의 운영과 규모도 해인사 해명학교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2년제 정도의 초급과정으로 볼 수 있다. 광성의숙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불분명한데, 1915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이 만들어지는 즈음에 폐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2. 광성의숙 졸업생과 백양사 포교활동

1913년 3월 25일 광성의숙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보통과 졸업생으로 박장조(朴長照), 김종열(金鍾悅), 오혁년(吳赫年), 이동석(李東錫), 황성연(黃性演), 김지현(金智玄) 등 6명이 졸업하였다.¹⁴⁾ 진급생은 22명이나 되었으니 이듬해 2회 졸업생은 그 몇 배가 되었을 것이다. 제1회 졸업생 가운데 박장조와 김봉수가 주목된다. 봉하(峰霞) 박장조(朴長照, 1887~1978)는 광성의숙 세부측량과(1910년)와 보통과(1913년)를 졸업하고, 1919년 동국대 전신인 불교중앙학림을 마쳤다. 해안(海眼) 김봉수(金鳳秀, 1901~1974)도 광성의숙을 마치고 박장조의 뒤를 이어 1922년 불교중앙학림을 마쳤다.

광성의숙 출신 김봉수는 중앙학림 재학중인 1921년 서울 유학승려 250여 명으로 조직된 유심학우회(唯心學友會) 지육부(智育部) 부원으로 활동하였다.¹⁵⁾ 유심학우회는 불교유학생학우회(佛敎留學生學友會)로 이름을 바꿔 활동하였다. 김봉수는 1921년 여름 호남청년회 주최로 진행된 호남학생순강단(湖南學生巡講團) 제3대 강사로 참여하여 ‘인생과 예술’(7. 28.

14) ‘佛家の 初有光華’, <매일신보> 1913. 4. 2.

15) ‘唯心學友會 役員’, <매일신보> 1921. 10. 21.

전주), ‘약자(弱者)의 소리’(7. 30. 김계) 등을 주제로 강연하였다.¹⁶⁾ 이를 마치고 백양사에 돌아와 조선불교청년회 백양지회 주최로 1921년 8월 4일 백양사 대강당에서 승속 100여 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선객(禪客)에게’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¹⁷⁾ 또한 1922년 불교유학생학우회 강연에 강사로 참여였다.¹⁸⁾ 김봉수는 불교유학생 조직에 임원으로 참여, 강연 등 적극적으로 청년운동을 전개하였다.

1922년말 1923년초 김성숙을 비롯한 일련의 승려들이 정치적 자유와 학문적 성취를 위해 북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김봉수는 한봉신과 더불어 김성숙, 김규하, 김정완, 윤종묵, 윤금, 김봉환, 차응준 등과 함께 했다. 이들 9명은 북경에서 문학단체를 만들고 철학, 시, 소설, 문학 일반을 담은 『황야(荒野)』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이들 가운데 김성숙을 비롯한 3명은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나머지 3명은 혁명이란 도무지 잠꼬대 같은 소리라며 귀국하였다.¹⁹⁾ 즉 윤금(尹錦)은 1924년 여름, 김봉수는 1924년 가을, 한봉신은 1925년 1월에 귀국하였다.²⁰⁾ 이들의 북경행은 불교단체의 주선으로 유학 형태를 띤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¹⁾ 관련자료를 통해 9명의 유학생을 사찰별로 정리하면 김봉수·한봉신(백양사), 김규하(고운사), 김성숙(봉선사), 김정완(유점사), 윤종묵(신계사), 윤금(표충사), 김봉환(범어사), 차응준(은해사) 등이다. 따라서 백양사와 관련하여 김봉수와 한봉신 2명이 함께 북경 유학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백양사 주지로 중앙고

16) ‘湖南學生講團 全州에서 講演會’, <동아일보> 1921. 8. 3.; ‘湖南學生講團着堤’, <동아일보> 1921. 8. 6.

17) ‘湖南學生巡講團의 佛教留學生講演會’, <동아일보> 1921. 8. 9.

18) ‘불교유학생학우회: 創造의 世界(金明湜), 自然과 人生(金鳳秀)’, <동아일보> 1922. 6. 11.

19) 님 웨일즈·김산, 『아리랑』, 동녘, 2013(개정 3판), p.194.

20) 『朝鮮人에 대한 施政關係雜件 一般의 部 3』, 『北京 天津附近在住 朝鮮人の 狀況 報告書 進達의 件』, 1925. 3. 20.

21) 이정식, 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회상』, 민음사, 1988, p.302.; 손염홍, 「1920년대 중국지역에서 전개한 김성숙의 민족혁명과 사회주의운동」, 『운암 김성숙의 생애와 사상』, 선인, 2013, p.35.

계에서 학무부장으로 활동하던 만암의 일정한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할 수 있다.

김봉수는 중앙학림을 마치고 중국 북경으로 유학하여 북경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봉수는 중국 북경에 유학하고 귀국하여 전북 부안군 산내면에 학교가 없음을 한탄하여 박형술(朴亨述)과 협력하여 내소사 지장암(地藏庵)에 야학을 개설하였다. 이후 ‘해성학원(海星學院)’이라는 이름으로 주간 일반 3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²²⁾

김봉수는 박장조 등 호남지역 승려 20여 명과 1925년 8월 2일 정읍 내장사에서 철우회(鐵牛會)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들 광성의숙 제1회 졸업생들은 백양사를 대표하여 중앙학림에 유학생으로 차례로 선발되어 유학함으로써 이후 백양사를 대표하는 승려로 활동하였다. 또한 백양사의 포교당 건립과 포교활동의 핵심적 인물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백양사의 포교활동은 특기할 만하다. 31본사 가운데 가장 많은 60여 개 포교당을 개설하였다는 점이다. 백양사 뒤를 이어 대흥사·범어사 그리고 통도사 등이다. 백양사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포교가 아닌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포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표 2> 일제강점기 백양사 포교당 현황

허가 연월일	포교소 명칭	포교소 소재지	포교자
1915. 12. 25	백양사 전주포교당	전북 전주군 전주면 청수정	金鍾來 1915. 12. 25
1918. 5. 7	백양본말사 전주 포교당	28	
1936. 9. 18		전북 전주부 풍남정 5	郭石城 1936. 9. 18
1915. 12. 28	백양사 전주포교당 진안출장소	전북 진안군 진안면 오천리	
1915. 12. 15	백양사 정읍포교당	전북 정읍군 정읍면 광교리	宋宗憲
1917. 7. 25	백양본말사 전주포교당	전북 임실군 오천면 운수리	

22) ‘海星學院 困境’, <동아일보> 1927. 8. 18.

	입실출장소		
1918. 8. 26	백양본말사 전주포교당 옥구출장소	전북 옥구군 미면 신흥리 153	
1918. 9. 21	백양사 말사 불갑사 목포포교소	전남 목포부 남교동 132-1	
1924. 6. 27	백양사 제주포교소	전남 제주도 제주면 삼양리	李甘龍/ 金榮烈 1936. 12. 28
1924. 11. 12	백양사 고부포교소	전북 정읍군 고부면 장문리	
1924. 8. 27	백양사 제주포교소	전남 제주도 우면 상호리	
-	백양사 제주포교당	전남 제주도 서귀면 서귀리	
1935. 9. 30	백양사 서귀포교당	236	寺內元澤 1941. 5. 9
1925. 10. 13	백양사 백산포교소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1925. 10. 13	백양사 칠보포교당	전북 정읍군 칠보면 반곡리 산12	金鳳秀 1941. 8. 20
1927. 3. 28	백양사 태인포교당	전북 정읍군 태인면 오봉리 14	金鳳秀 1941. 8. 20
1927. 6. 7	백양사 기양포교당	전북 익산군 금마면 기양리	金鳳秀 1941. 8. 20
1932. 6. 15	백양사 말사 내소사 부안포교당	전북 부안군 부녕면 서외리	金鳳秀 1932. 11. 20
1932. 9. 7	백양사 담양포교당	전남 담양군 담양면 향교리	
1934. 9. 29		전북 담양군 담양면 남산리	
1932. 11. 7	백양사 말사 개암사 백룡포교당	전북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安亭植
1933. 11. 20	백양사 고내포교당	전남 제주도 신우면 고내리	李甘龍/ 金榮烈 1936. 12. 28
1934. 11. 5	백양사 동명리 포교당	전남 제주도 구우면 동명리	李甘龍/ 金榮烈 1936. 12. 28
1935. 7. 11	백양사 함덕포교당	전남 제주도 조천면 함덕리	李昌碩 1937. 7. 29
1935. 11. 7	백양사 극락강 포교당	전남 광산군 비아면 신장리	
1936. 1. 3	백양사 운수포교당	전남 광산군 송정면 운수리 423	
1935. 7. 20	백양사 옥구포교당	전북 옥구군 미면 신흥리 153	
1936. 4. 7	백양사 보덕포교당	전북 대야면 보덕리 656	
1936. 5. 4	백양사 백운포교당	전북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77-1	
1936. 5. 25	백양사 산월포교당	전북 옥구군 대야면 산월리 산 84	

1936. 5. 30	백양사 옥산포교당	전북 옥구군 옥산면 옥산리 378	
1936. 4. 10	백양사본말 영광포교당	전남 영광군 영광면 남천리 91	
1936. 11. 19	백양사 한림포교당	전남 제주도 한림면 한림리 1152	李甘龍 1936. 12. 21 宋宗憲 1938. 10. 20
1937. 2. 25	백양사 강경포교당	충남 논산군 강경읍 황금정 122	
1937. 2. 13	백양사 말사 구암사 반월리 포교당	전북 순창군 북흥면 반월리 360	
1937. 2. 13	백양사 말사 구암사 순창포교당	전북 순창군 순창면 순화리 671	
1937. 4. 12	백양사 북촌포교당	전남 제주도 조천면 북촌리 659	金榮烈
1937. 6. 21	백양사 부산포교당	경남 부산부 수정정 773	李承柱
1937. 10. 11	백양사 토산포교당	전남 제주도 표선면 토산리 426	李昌碩 寺內元澤 1941. 5. 9
1938. 4. 18	백양사 월봉포교당	전북 백구면 월봉리 235	
1938. 5. 2	백양사 무림포교당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산 34	
1938. 3. 25	백양사 제주포교당	전남 제주도 제주읍 일도리 1150	朴承洙 宋宗憲 1938. 7. 27
1938. 4. 28	백양사 말사 내장사 남산포교당	전북 정읍군 북면 남산리 10	鄭奉謨
1938. 7. 18	백양사 상옥포교당	전남 함평군 학교면 상옥리 산 85	
1938. 9. 9	백양사 봉강포교당	전남 보성군 회천면 회녕리 141	
1938. 12. 26	백양사 정관포교당	경남 동래군 정관면 용수리 107	李承柱
1939. 2. 10	백양사 미룡포교당	전북 옥구군 미면 미룡리 98	金鳳秀
1938. 12. 26	백양사 부산서부포교당	경남 부산부 대청정 4정목 3	洪箕浹
1939. 11. 22	백양사 남평포교당	전남 나주군 남평면 서산리 산 8	
1940. 2. 6	백양사 송정포교당	전남 광산군 송정읍 운수리 산 299	朴長照 1940. 2. 21
1940. 5. 27	백양사 광주포교당	광주부 서석정 산 57	崔煥權
1940. 3. 25	백양사 정주포교당	전북 정읍군 정주읍 시기리	朴長照

1939. 9. 20	백양사 김녕포교당	전남 제주도 구좌면 동김녕리 1624	孝井光彦 1941. 6. 7
1940. 8. 26	백양사 사계포교당	전남 제주도 안덕면 사계리	孝井光彦
1941. 3. 29	백양사 진안포교당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6	金鳳秀
1941. 5. 18	백양사 설천포교당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131	高山大石
1941. 6. 7	백양사 삼천포포교당	경남 사천군 삼천포읍 대방리 44	金海龍祐
1941. 4. 25	백양사 청동포교소	전남 나주군 나주읍 청동리 117	
1941. 8. 20	백양사 이리포교당	전북 익산군 이리읍 마간정 132	金鳳秀
1941. 10. 21	백양사 석담포교당	전북 김제군 백구면 석담리	韓鳳莘
1943. 11. 11	백양사 외하포교당	전북 부안군 부안읍 외하리 414	

특히 백양사 포교형태는 군·읍 단위보다 마을(里) 단위의 소규모 포교소를 운영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특히 불교의 불모지대였던 제주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포교는 인상적이다. 이는 백양사가 지니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것으로 당시 불교계의 포교양상의 또 다른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²³⁾

또한 포교사들은 김종래, 김봉수, 김영렬, 한봉신 등 광성의숙과 관련한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불교의 발전은 ‘흥학(興學)과 포교(布教)’에 있다는 슬로건을 직접 실천으로 이끈 만암과 그의 제자들이다. 백양사 포교당 설치 노력은 괄목한 것이었고, 20여년 간 백양사 주지였던 만암의 역할과 노력이 간과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23) 한동민, 『‘寺刹令’ 體制下 本山制度 研究』 중앙대 박사논문, 2005.

Ⅲ. 일제강점기 중앙교계에서의 역할과 교육활동

1. 중앙불교계 진출과 활동

근대 백양사의 역사에서 만암 송종헌의 위상과 역할은 절대적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이후 백양사 주지를 6번에 걸쳐 20여 년간을 역임하면서 백양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1916년 이래 백양사 주지를 역임한 만암 송종헌은 1930년대 중반까지 백양사를 이끌었고, 다시 1943년 이후 백양사 주지로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의 격변기를 거쳐 백양사를 지켜냈다.

만암은 백양사 주지가 되는 1916년 이전부터 김환웅 주지를 대신하여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다. 우선 30본산 주지회의에 참석하여 존재감을 드러냈다. 1915년 1월 1일부터 개최된 조선선교양종30대본산주지회의소(朝鮮禪敎兩宗 三十大本山住持會議所) 제4회 정기총회가 각황교당에서 진행되었을 때 송종헌은 김환웅 백양사 주지를 대리하여 참석하였다.²⁴⁾ 총회의 주요한 안건으로 각황교당(覺皇敎堂) 건축경비 처리, 불교중앙학림(佛敎中央學林) 설립, 『불교월보(佛敎月報)』 간행 및 교육과 포교 상황 보고 등이었다. 이번 주지총회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1915년 1월 10일 중앙학림(中央學林) 설립에 대한 결의였다. 이는 불교계 내부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였다. 또한 1914년 8월 중 정지된 『해동불보(海東佛報)』를 『불교진흥회월보(佛敎振興會月報)』로 변경하여 불교진흥회에서 회비로 간행하기로 하였다는 점이다. 회의 마지막날인 1월 10일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회광(李晦光, 1862~1932)을 대신하여 30본산주지회의 원장으로姜대련(姜大蓮, 1875~1942)이 선출되었다.²⁵⁾

24) 「朝鮮禪敎兩宗三十大本山住持會議所 第四定期總會會議狀況」, 『佛敎振興會月報』 제1호(1915. 3), pp.69-82.

<표 3> 일제강점기 호남지역 본산 주지 명단

백양사(장성)	송광사(순천)	선암사(순천)	대흥사(해남)	화엄사(구례)
金幻應 1912. 12. 19.	李雪月 1911. 11. 25.	方洪波 1911. 11. 25. (1912. 8. 11. 입적)	白翠雲 1912. 5. 11.	(朴抱月) 1911. 11. 30.
宋宗憲 1916. 7. 4.	이설월 1915. 7. 7.	張基林 1913. 6. 16.	백취운 1915. 6. 7.	(박포월) 1915. 1. 19.
송종현 1920. 12. 25.	이설월 1918. 8. 26.	장기림 1916. 8. 19. (1916. 10. 19. 입적)	申鏡虛 1918. 5. 29.	(陳震應) 1917. 11. 14.
송종현 1923. 12. 8.	金贊儀 1922. 7. 10.	金淸昊 1917. 1. 24.	신경허 1921. 5. 28.	河龍華 1925. 5. 1.
柳錦海 1927. 10. 20.	김찬의 1926. 5. 14.	김청호 1920. 1. 22.	백취운(白翠雲) 1923. 11. 7.	鄭秉憲 1931. 9. 18.
송종현 1930. 11. 7.	이설월(李雪月) 1929. 9. 3.	徐漢英 1921. 3. 22.	백취운 1927. 9. 2.	정병헌 1935. 5. 9.
송종현 1934. 1. 22.	林錫珍 1932. 10. 8.	서한영 1924. 6. 3.	甘船月 1930. 11. 7.	姜在源 1938. 6. 8.
田敬充 1937. 3. 2.	임석진 1935. 10. 8.	李月泳 1927. 5. 3.	감선월 1933. 10. 31.	蘇秉善 1940. 3. 16.
金萬應 1938. 7. 5.	임석진 1938. 10. 8.	이월영 1930. 5. 29.	朴映熙 1937. 1. 23.	義川東月 1943. 10. 19.
曼庵宗憲 1943. 6. 3.	林原吉(임석진) 1941. 12. 10.	金東山 1931. 12. 8.	박영희 1940. 2. 14.	
		김동산 1934. 12. 8.	赫田元雄 1943. 6. 23.	
		朴秉芸 1940. 1. 24.		
		陽村映遂 1943. 4. 30.		

송종현이 1916년 백양사 주지가 된 이후 중앙교계의 30본산연합사무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1918년의 일이다. 즉 1915년 만들어진 30본

25) 한동민, 「1910년대 禪教兩宗 30本山聯合事務所의 설립과정과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5,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2000.

산연합사무소는 위원장 강대련에서 1917년 통도사 김구하로 바뀌었다. 이듬해 1918년 7명의 상치원 가운데 백양사 송종헌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즉 해인사 이회광(李晦光), 동화사 김남파(金南坡), 범어사 김용곡(金龍谷), 송광사 이설월(李雪月), 용주사 강대련(姜大蓮), 봉은사 나청호(羅晴湖), 백양사 송종헌(宋宗憲) 등이다.²⁶⁾ 이로써 중앙불교계에 만암은 확실한 위상과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 30본산연합사무소의 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앙학림의 운영이었다. 따라서 1918년부터 1920년까지 3년간 30본산연합사무소의 7명의 상치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은 중앙교계에서 역할과 활동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거니와 중앙학림-불교전수학교로 이어지는 흐름과 더불어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선임되는 계기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1921년 1월 11일 30본산주지총회에서 종무원(宗務院) 임원을 새롭게 선임하였을 때 ‘학무부장(學務部長)’으로 선임되었다는 점과 연결된다. 즉 종무원 원장은 홍보룡(월정사)이었고, 총무 김구하(통도사), 서무부장 강대련(용주사), 교무부장 김일운(유점사), 학무부장 송종헌(백양사), 재무부장 김상숙(봉은사)이었다.²⁷⁾ 중앙교계에서 학술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학무부장을 역임하고 있다는 점은 만암 송종헌의 교육적 위상과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1923년 3월 조선불교중앙교무원이 만들어질 때 송종헌은 26명의 주지 평의원 가운데 한 명이었고, 이후 1926년 3월 중앙교무원 7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즉 1926년 3월 23~26일까지 진행된 조선불교중앙교무원 제4회 평의원회 총회가 개최되었을 때 주요한 안건으로 보성고등보통학교의 인수와 불교전문학교 건설 등을 결의하였다. 이때 송종헌은 7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 되었다. 7명의 이사는 송종헌을 비롯하여 이혼성(李混惺)·강대련(姜大蓮)·이우영(李愚榮)·유호암(柳護庵)·김일운(金一雲)·김만응(金萬應)이었다. 만암은 이후 1932년까지 7년간

26) 『朝鮮總督府官報』 1918. 1. 19.

27) 『每日申報』 1921. 1. 12.

중앙교무원 이사직을 연임함으로써 중앙교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였던 것이다.

한편 1929년 1월 승려대회를 거쳐 중회가 만들어졌다. 즉 1929년 1월 5일 조선불교선교양종 승려대회 제3일차 회의가 각황사에서 속개되었다. 오전 회의에서 종헌(宗憲), 교무원원칙(敎務院院則), 교정법(敎正法), 법규위원회법(法規委員會法), 승니법칙(僧尼法則) 등을 제정하고 오후 회의에서는 교정(敎正) 선거에 들어가 김환응(金幻應, 백양사), 서해담(徐海曇, 통도사), 방한암(方寒岩, 오대산 중대), 김동선(金東宣, 유점사), 박한영(朴漢永, 개운사), 이용허(李龍虛, 법주사), 김경운(金敬雲, 선암사) 등 7명을 선임하였다. 또한 교무원(敎務院) 임원으로 서무부장 이혼성(李混惺), 교학부장 송종헌(宋宗憲), 재무부장 황경운(黃耕雲)을 선출하였다.²⁸⁾ 이로써 새로운 중회 체제에 따른 교무원이 조직되었고, 중회체제의 ‘교무원 교학부장’으로 선임된 송종헌은 당시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따라서 송종헌에 대한 불교계의 이미지와 역할은 학술 및 교학 등에 밝은 승려로 인식되고 인정되었던 것이다.

지금 불교를 운전하는 중심세력은 朝鮮佛敎中央敎務院에 있다. 교무원은 각지에 잇는 31本山으로써 조직된 단체로써(一本山이라 하면 일정한 지역 안에 잇는 수십 或 수백 사찰을 전부 관리하는 곳 - 예컨대 安邊 釋王寺는 江原의 일부와 咸南의 定平 以南 사원을 총관하며 咸興의 歸住寺는 咸興 以北의 사원 전부와 咸北 전부를 敎化관리하는 곳) 여기에 3개의 부서가 잇스니 敎學部엔 佛敎專門學校교장으로 잇섯든 宋宗憲씨가 據하였고 庶務部에 李昏성 財務部에 通度寺의 黃耕雲씨가 모다 그 책임자로 잇스며 따로히 敎化기관인 佛敎社에 韓龍雲씨가 있다.²⁹⁾

따라서 중무원 체제의 학무부장과 교무원 체제의 교학부장으로 만암

28) <東亞日報> 1929. 1. 7.

29) 「次代の 指導者 總觀」, 『三千里』 4-3호, 1932. 3, p.30.

송중헌이 선임되어 활동했다는 것은 중앙교계에서 학술적이고 학교 교육에 대한 애정과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교무원의 교학부장은 보성고등보통학교 운영 등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였다. 또한 1928년 불교전수학교 초대교장으로 재임하면서 교계에서의 이러한 위상은 더욱 확고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22년 폐교된 중앙학림을 계승한 불교전수학교는 이후 중앙불교전문학교(1930~1940)를 거쳐 혜화전문학교(1940~1946), 이후 동국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재단법인 교무원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⁰⁾ 이 시기는 1924년부터 보성고를 운영하고, 만암 송중헌이 교무원 교육부장으로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였고, 이후 불교전문학교 승격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2. 불교전수학교와 불교전문학교 교장 취임과 활동

1922년 5월 29일 중앙학림의 휴교 이후 불교계의 불교전문학교 건립 노력은 지속되었다.

1919년 3.1운동 이후 배워야 한다는 교육열이 전국적으로 분출하였고, 이에 불교 유학생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서울에 250여 명이 되었다. 그러나 1925년에는 겨우 4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 되었다.³¹⁾ 1922년 중앙학림이 일제당국에 의해 폐쇄되면서 1923년 이후 불교 유학생이 급격히 줄어들어 1925년에는 겨우 40명에 불과한 실정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1925년 조선불교중앙교무원 평의회회에서 불교전문학교 설립을 의결하고 난 뒤 중앙학림이 사용하던 부지를 불하받았다. 이후 1926년 12월 교사 신축 공사 입찰을 통하여 옛 북관묘의 중앙학림 터

30) 김성연, 『일제하 불교 종단의 형성과정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18.

31) 周東元, 「中央佛敎學友會의 一員으로서 全朝鮮佛敎徒 諸師의 압해 告白 하나이다」, 『佛敎』 제17호, 1925. 11, p.24.

였던 명륜동 1번지에 불교전문학교 교사를 완공한 것이 1927년 10월 21 일이었다. 이에 1928년 3월 31일 조선총독부로부터 불교전수학교(佛敎專修學校) 설립 인가가 나왔다.³²⁾ 불교전수학교로 인가를 얻은 지 1개월 뒤인 1928년 4월 30일 공식적으로 개교하였다. 1922년 중앙학림 휴교 이후 불교계의 교육기관은 1924년부터 보성고보 경영이 가장 큰 사업이었다. 일반학교였던 보성고보와 달리 불교전문학교의 설립은 불교계의 숙원사업이었다. 이에 불교계 고등교육기관 설립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실이 불교전수학교의 인가와 개교라 할 수 있다.³³⁾

불교전수학교가 1928년 4월 30일 개교하였을 때 교장은 만암 송중현이었다. 교수는 김영수(金映滲, 1884~1967)·에다 토시오(江田俊雄, 1898~1957), 강사는 박한영·김법린·백성욱·윤태동·백우용·이희상, 서무 조학유 선생이었다. 또한 제1회 입학생으로는 강유문·김용학·김말봉·김해윤·문기석·박봉석·조명기·박영희·박윤진·정재기·주동훈·최문석·한성훈·한영석 등 40명이었다.³⁴⁾ 그러나 입학생 40명 가운데 1931년 3월 불전 제1회 졸업생은 24명이었다.

만암 송중현이 불교전수학교 및 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는 것은 1928년 4월 30일부터 1931년 4월 22일까지 3년간이었다. 이 시기는 한국 근대불교사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빛나는 한 시대라 할 수 있다.

만암 송중현이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이는 만암이 중앙교계에서 학무부장과 교학부장을 담당하였던 경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28년 3월 14~17일까지 각황사에서 불교계 모순을 개혁하려는 승려 46명이 ‘조선불교학인대회’를 개최하였다. 강원의 학생들이 불교개혁과 불교발전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32) 『東大七十年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1, pp.35~37.

33) 金映潭, 「朝鮮佛敎生命의 象徴인 中央佛敎專門學校」, 『一光』 제4호, 1933. 12, pp.12-13.

34) 편집실, 「三年」, 『一光』 제3호, 1931. 3, p.82.

를 실천하고자 했던 최초의 대회였다. 학인대회에 참가한 이들은 강원의 재학생과 수료생들이었고 대회를 이끌었던 주체들은 불교개혁의 방향을 불교교육에서 찾았다.³⁵⁾

이러한 학인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회를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1928년 3월 18일 오찬을 만암 송중헌(중앙교무원 이사)이 베풀었다.³⁶⁾ 여타 중앙교무원의 교직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하연을 베푼 사실은 백양사 강원을 대표하여 김영식·유영하·이지원 등이 참석한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강원의 학인들에 대한 애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원의 학인들과의 연대의식이 불교전수학교 교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학인들의 불교현실에 대한 인식은 불교개혁은 불교교육에 있다는 만암 송중헌의 불교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암 스님의 구체적인 불교인식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지만 이러한 측면의 이해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불교전수학교 교장 시절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불교전수학교의 불교전문학교로의 승격이라 할 수 있다. 전문학교 승격을 위한 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교무원의 총독부에 대한 압박이 주효한 측면이 강하였지만, 교장 송중헌 이하 교직원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1929년 3월 27일 조선불교중앙교무원에서는 제7회 평의회회를 열고 40만원을 증자하며 불교전수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시킬 것을 결의하였다.³⁷⁾ 이에 1930년 1월 8일 전문학교 승격신청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고, 1930년 4월 7일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 인가되었다. 이는 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등전문교육기관 설립의 꿈이 현실화되는 순간이었다.

35) 김광식, 「조선불교학인대회록과 불교개혁」, 『불교평론』 18, 2004. 3.

36) 이보다 앞서 3월 16일 오찬은 임천명화(단성사 경영주 박승필의 자당), 3월 17일 오찬은 경인생 이씨(경성 무교동 거주)가 보시하였다.

37) <동아일보> 1929. 3. 29.

수업연한 3년의 본과(本科)·특과(特科)·선과(選科) 3개 과에 학생 정원 150명의 불교전문학교는 1930년 4월 25일 역사적인 개교를 하게 되었다.³⁸⁾

만암은 전수학교에서 전문학교로 변화하는 역사적 현장에 가장 중요한 교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학감은 김영수(金映濬, 1884~1967)였다.

또한 만암의 교장 재직시에 조직된 불전교우회와 그 활동이 특기할 만하다. 1928년 5월 4일 불전학우회(佛專學友會) 창립을 결의하고, 준비위원 5인(박영희, 문기석, 주동훈, 손옥현, 강유문)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불전학우회는 학생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교직원들도 포함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어 불전교우회(佛專校友會)가 결성되었다. 즉 1928년 5월 28일 불전교우회(佛專校友會) 창립총회를 열고 만암 송종헌을 회장으로 하는 조직을 결성하였다.³⁹⁾

회 장 : 송종헌

총 무 : 김영수

종교부장: 박한영, 종교부 간사: 박영희, 박윤진, 김재원

학예부장: 윤태동, 학예부 간사: 강유문, 주동훈, 한성훈

변론부장: 김법린, 변론부 간사: 문기석, 김해운, 권증원

체육부장: 이희상, 체육부 간사: 박근섭, 박봉석, 박성희, 방규석

회 계 : 조학유, 정재기

만암은 불전교우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1931년 교장직을 사퇴할 때까지 조직을 이끌었다. 불전교우회 역시 재학생들의 주동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교직원의 호응과 참여가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정식회원은

38) <동아일보> 1930. 4. 11.

39) '重要日誌', 『北漢烽臺』, 『一光』 1호, p.53.

학생들이었고, 교직원들은 명예회원이었다. 불전교우회 회장 송종헌을 비롯하여 개교 후 교직원이었던 김영수·에다 토시오(江田俊雄, 1898~1957)를 비롯하여 박한영·윤태동·김법린·이희상·백우용·홍명희·백운화·조학유·유이청·도진호 등이 재직하고 있었고, 전직원으로 정인보·백성욱·민부훈 등도 있었다.⁴⁰⁾

한편 불전교우회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1928년 12월 중앙불교전문학교의 교지(校誌)에 해당하는 잡지 『일광(一光)』을 발간한 점이다. 『일광』은 중앙불전교우회에서 1928년 12월 창간호가 나온 이래 1940년 1월까지 발간되었다. 교지 발간은 학교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된 것이었고, 역시 불교전문학교 교장이자 불전교우회 회장이었던 만암 송종헌의 지원과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불전교우회의 활동 가운데 전국옹변대회와 학술강연회 및 지방순회 강연회는 불교전문학교의 존재와 더불어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특히 대외적 활동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하계순강단(夏季巡講團)을 조직하여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교 강연 및 계몽활동을 벌였던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4. 8)을 기하여 전국에 10만 매에 이르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이렇듯 만암이 불전교우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불전교우회 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강유문을 비롯하여 박영희·박운진·한성훈 등 불교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자부심과 자신들의 역할과 의미를 인식하고 활동한 것과 연결된다. 이들은 새로운 신진세력으로 1931년 2월 24일 이구오팔회(二九五八會)를 조직하였다.⁴¹⁾ 이들은 만암이 교장으로 재직하였던 시절 함께 동고동락을 한 제1회 졸업생들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한편 1931년 4월 22일 만암은 불교전문학교 교장직을 사면하였다.⁴²⁾

40) ‘會員名簿’, 『北漢烽臺』, 『一光』 1호, p.53.

41) 김광식, 『二九五八會考』,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그리고 열흘 뒤인 1931년 5월 2일 종래 교직원과 학생으로 조직된 ‘중진 교우회’가 해체되었다. 직원 및 졸업생으로 ‘교우회’를 조직하고, 학생들은 ‘학생회’로 분립하여 조직되었다.

1931년 5월 6일 교무원 이사회에서 김영수 교수를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임명하였으나 학생들은 5월 9일 교장문제로 동맹휴학을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튿날 임시 교직원회를 개최하고 11일 학교 및 교무원 당국자가 학교에서 회집하여 사태 해결에 노력하여 26일 동맹휴학이 무사히 해결되었다. 그리고 6월 8일 김영수 교장 취임식이 거행될 수 있었다.

만암의 교장직 사퇴 이후 벌어진 일련의 학교사태를 통해서도 만암의 위상과 역량에 대한 반증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31년 7월 6일 만암은 김해은과 더불어 불전 도서관 고문으로 추천되었고, 1932년 5월 31일 중앙불교전문학교가 고등학교 고등과 또는 대학 예과와 동등 이상으로 지정되었다.⁴³⁾

만암이 불교전수학교 교장 시절 3년 동안의 업적은 불교전수학교를 불교전문학교로 승격시키고, 교지 『일광(一光)』을 발간하고, 불전교우회를 조직한 것이다. 만암의 불전 교장시절 3년간은 제1회 졸업생들과 함께 했다는 점이다. 이는 제1회 졸업생 24명이 조직한 이구오팔회(二九五八會)와 사제관계에 더하여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이후 만암이 지닌 중앙불교계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뜻한다. 이들 젊고 패기에 찬 승려 집단인 불전 제1회 졸업생들과 만암과의 관계도 조명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42) ‘모교급본회의 중요일지’, 『北漢烽臺』, 『一光』 4호(1933. 12) p.69.

43) 『朝鮮總督府官報』 1932. 6. 13.

3. 보성고보 인계 반대운동

불교계가 운영하던 보성고보가 고계학원(高啓學院)으로 인계되는 과정에서 만암이 보여주었던 활동은 교육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미 일제하 불교계의 보성고보 경영 문제는 연구논문이 제출되어 있어 그 종합적인 진전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⁴⁴⁾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보성고보를 1924년 총무원에서 인수하면서 불교계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총무원이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흡수되면서 보성고보는 교무원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되었다. 그리고 불교계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1935년 고계학원으로 인계될 때까지 10여 년간 불교계에서 운영한 보성고보에 대한 애정은 남다른 것이었다. 고계학원(高啓學院)은 강원도 철원의 부호 고계하(高啓河)가 1926년 사망하자 후손들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문화 사업을 하기 위한 22만원 재단법인을 1934년 총독부 인가를 받은 것이다. 1934년 11월 2일 새 이사장으로 조선일보 방응모(方應謨) 사장을 선임하였다.⁴⁵⁾

보성고보를 고계학원으로 운영권을 인계한다는 교무원 실무진의 계획이 알려지면서 백양사에 내려가 있던 만암은 격렬한 반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즉 1934년 10월 31일 소집된 본산 주지회의에서 보성고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보성고보 문제로 서울로 급히 올라온 만암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우리 불교측에서 경영할 힘이 없고 생각이 없다고 하면 다른 조훈재단에 넘기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물론 당연한 일이고 조훈 일입니다. 그러나 재력이 없지 아니하고 또 경영권을 다른 데 넘긴다는 것이 우리의 중의가 아니고 일부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진대 법률상 문제는 둘째로

44) 김광식, 「일제하 佛敎界의 普成高普 經營」,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45) 보성중고등학교, 『普成百年史』, 2006, pp.316-317.

첫째 우리 불교계 전체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새로 생긴다는 재단 그 자체가 의문 중이라면 도모지 문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설혹 최악한 경우를 가정해서 전 조선본산이 일치 못된다고 하더라도 몇 군대 본산만 협력하면 재원은 염려 없습니다. 어쨌든 이 학교는 우리 손으로 완성해 가야 할 일입니다.⁴⁶⁾

만암은 경제적 재력이 튼튼한 재단이 학교를 운영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현재 불교계가 재력이 충분한데도 이를 포기하는 것은 불교계의 수치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 인계가 전체적인 불교계의 의견이 아닌 소수의 견해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만암은 최악의 경우 몇 군대 재력 있는 본산이 협력해서라도 보성고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만암은 백양사 등 8본산 중심이라도 보성고보를 계속 경영키로 약속하고, 성명서와 책임서를 발표하였다. 이를 주동한 인물이 백양사 만암 이었다. 8개 본산은 통도사, 범어사, 해인사, 은혜사, 대흥사, 법주사, 백양사, 건봉사를 일컫는다. 애당초 1923년 이전 총무원 시절 몇 개 본산의 힘으로 학교를 운영해 보았던 역사적 경험도 있고, 불교전수학교 교장을 역임했던 경력과 향후 불교계의 학교 운영에 대한 총체적 비전에 대한 고민에 따른 것이었다.

이에 백양사 송종헌 주지를 중심으로 한 8본산의 ‘성명서(聲明書)’와 ‘책임서(責任書)’는 보성고보 운영에 대한 의지의 천명이자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몸부림이기도 했다. 즉 ‘성명서’에서 “... 普成高等普通學校는 未來際가 다하도록 다른 機關으로 引渡치안키를 同意決心하고 따라서 同校를 繼續經營함에 當하야 全責任을 지고 從前보다 一層 內容을 充實케하기로 滿場一致 可決되었기 此를 聲明함”으로써 영원토록 보성고

46) ‘어쨌든 이 學校는 우리의 손으로 - 이 앞으로 열성을 다할터라’, <동아일보> 1934. 11. 2

보를 경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책임서’를 통해 8개 본산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다. “... 8本山이 右校 經營에 대한 最後까지 絶對責任에 臨할 것을 이에 約束”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도사 주지 대리 김경봉, 범어사 주지 오리산, 해인사 주지 이고경, 은혜사 주지 박도수, 대흥사 주지 감선월, 법주사 주지 장석상, 백양사 주지 송종현, 건봉사 주지 김보련 등이 서명한 ‘책임서’가 1934년 10월 31일자로 발표되었다.⁴⁷⁾ 8대 본산의 의지를 갖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한다면 문제는 없었다. 이러한 움직임에 1934년 11월, 보성고보 경영을 위해 전국의 31개 본산은 재단의 20만원 증자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20만원 증자에 따른 재단 납부금에 불응한 본사는 봉은사·전등사·송광사·김룡사·패엽사·영명사·월정사·동화사·위봉사 등 9개 사찰이었고, 가부에 대한 회답이 없는 사찰은 봉선사·마곡사·보석사·보현사·석왕사 등 5개 사찰, 교섭 사찰로는 용주사·화엄사·선암사·기림사·유점사·귀주사 등 6개 사찰이었다. 그리고 납부한 2개의 사찰은 고운사와 성불사에 불과하였다. 이에 만암은 교섭위원 8명 가운데 한 명으로 증자 교섭에 힘쓰고 있다. 그가 교섭할 대상 사찰이었던 화엄사는 만암의 설득과 교섭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떠한 회답도 주지 않았다. 결국 8개 본사 주지들을 비롯한 교섭위원들은 전국 각 본산에 대하여 재단 분담금을 독려하였지만 기대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각 본산에서 분담금 수금이 전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결국 교무원은 1935년 3월 4일 제13회 평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증자 성적이 좋지 않음으로 하여 1935년 9월 12일 전국 각 사찰에 보성고보 양도 성명서를 발부하고, 9월 13일 고계학원에 정식으로 인계 수속을 완료하게 되었다.⁴⁸⁾

47) ‘普成高普經營 增資繼續기로 決議’, <조선일보> 1934. 11. 5.

48) 김광식, 「일제하 佛敎界의 普成高普 經營」,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p.286.

이에 만암은 9월 16일 보성고보 양도에 반대하며 교무원 탈퇴를 성명하고, 성명서를 9월 20일 교무원에 전달하였다. 이에 교무원에서는 즉각 김정해를 백양사로 출장하여 만암을 만나 재단 탈퇴 성명은 합법적 효력이 없고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에 만암은 자신이 1936년 3월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성고보의 운영의 핵심은 재단 증자에 있었으나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하였다. 더욱이 각 본산은 60만원 재단 전입금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1935년 2월 15일 현재 교무원의 재단금 60만원 중 1종 미수금은 27만1,770원에 달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해인사(9만7천원), 범어사(4만4천원), 통도사(3만6천원)의 뒤를 이어 백양사가 1만4천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지니고 있었다. 경남3본산의 경제력에 비해 열악한 백양사의 처지에서 보면 재단 분납금의 미수상태는 주지 송종헌의 의지와 상관없이 백양사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수금 내역을 살펴보면 1926년 8월 28일 원금 1만3천730원에 대하여 백양사 토지를 저당하고 1926년부터 1930년까지 5개년 연부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금만 매회 980원씩 상환하기로 한 바 1934년까지 9개년간 상환액이 8천178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설정 이후 1931년까지 6개년을 걸쳐 상환금액이 겨우 831원으로 1회분도 못되는 상환금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⁴⁹⁾

따라서 만암의 보성고보 유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보성고보 운영을 위해 20만원 증자안에 적극적이지 못한 각 본산의 대응은 백양사의 현 상태에서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만암의 보성고보 운영의 강력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재정 문제에 직면하여 궁극적으로 보성고보를 고계학원에 인

49) 『財團法人 朝鮮佛教中央敎務院 第13回 定期評議委員會會錄』, 『한국근대불교자료전집』 66, 민족사, 1935. 3. 4, pp.26-32.

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럼에도 만암의 보성고보 운영에 대한 강렬한 애착은 일반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과 불교 대중화에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VII. 해방 후 만암의 교육활동

1. 백양사 한글강습회 개설

일제의 패망에 따라 조국의 정치경제적 해방만큼 중요했던 것은 국어의 해방이었다. 일본어와 일본문자에서 벗어나 한국어와 한글의 사용은 그 어떤 해방의 징표보다 강렬한 것이었다.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고 강요받았던 상황에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일반대중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정확한 한글의 이해와 사용법이었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1938년 3월 4일에 개정 공포된 <조선교육령>으로 조선어는 필수과목이 아닌 수의과목(隨意科目)이 되었고, 1939년 4월부터는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와 동시에 교내외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어 해방이 될 때까지 7년간 학교교육에서 우리말과 글은 완전히 제거된 암흑기였다. 일제말기 7년간 말살되었던 국어교육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했던 것은 교육용 한글 교본이었다. 다행히 조선어학회는 1933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공포하고, 1936년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한 바 있다.

한글을 전혀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 1945년 해방이 되자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 첫걸음』으로 우리글인 한글을 배워 거리의 벽보를 읽을 수 있었다는 당시의 증언을 통해 한글강습회가 진행되어야 했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한글 첫걸음』은 1945년 11월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하여 군정청 학무국에서 발행한 한글 입문 교본이었다.

한글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과 한글 독본의 보급이 가장 시급했지만 조

선어학회는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이 한글강습회 개최였다. 이희승(李熙昇), 이극로(李克魯) 등 조선어학회에서 주관한 한글강습회는 우선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의 양성이 가장 시급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정도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글강습회 사범부(師範部)를 개설한 것이다. 1945년 9월 11일 개강한 한글강습회 사범부 600여 명의 제1기 종료식이 1945년 9월 24일 수송국민학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⁵⁰⁾ ‘한글의 씨가 되어지다!’라는 이극로의 열렬한 훈사와 수업증서를 받았던 600여 명의 사범부 수료생들은 이후 전국적으로 한글강습회를 열어 한글 보급에 힘쓰는 밑거름이 되었다. 조선어학회는 한글강습회를 9월 제1회 개최하여 600여 명을 배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한글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조선어학회 제2회 한글강습회(사범부)는 194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오후 1시~5시) 3주 동안 배재중학 강당과 이화고녀 강당에서 진행되었다.⁵¹⁾

한편 한글강습을 위해 조선어학회는 1945년 9월 24일 한글의 시급한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한글문화보급회>를 결성하였다.⁵²⁾ 서울에 본부를 두고 도 단위로 지부를 설치하여 조선어학회 지도를 받아서 강연회, 강습회, 기관지 발행, 출판을 통하여 한글을 널리 보급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조직은 명예회장 이희승(李熙昇), 회장 이방익(李邦翼), 총무부장 이원걸(李元傑), 사업부장 이갑두(李甲斗) 등이었다.⁵³⁾ 당시 슬로건은 “동포여, 우리말은 우리 글로, 배우자! 가르치자! 우리 이름은 우리 글로, 통일된 글자로 바른 글을 쓰자.”였다. 「한글문화보급회 취지서」는 우리 민족의 몸을 묶고 우리말과 글을 매장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의 철쇄를 끊어내고 이제 “우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조선 방방곡곡의 우리 동포

50) ‘한글講習會終了式’, <민중일보> 1945. 9. 29.

51) ‘朝鮮語學會에서 한글講習會開催, 十月二十四일부터 三週間’, <新朝鮮報> 1945. 10. 20.; ‘제2회 한글講習’, <新朝鮮報> 1945. 10. 23.

52) ‘한글문화보급회 결성’, <민중일보> 1945. 9. 30.

53) <매일신보> 1945. 9. 26.

에게 우리의 생명ियो 세계의 자랑인 한글을 신속히 보급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훈민정음’ 제정의 정신으로 조선어학회 지도 아래 ‘통일된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한글문화’를 크게 일으켜 우리나라 문화 향상과 인류문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강령을 내세웠다.

- 가. 우리는 ‘훈민정음’ 제정의 정신에 돌아가 그 거룩한 이상의 달성을 기약함
나. 우리는 조선어학회의 지도 아래 ‘통일된 한글’의 연구와 보급에 온 힘을 다 하기를 기약함
다. 우리는 우리의 ‘한글문화’를 크게 일으킴으로써 우리나라 문화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인류문화에 이바지하기를 기약함.

한글문화보급회는 한글을 배우려는 수많은 동포들의 기대에 따라 한글강습회를 조선어학회 지도로 1945년 11월 1일부터 개최하였다. 문법론(文法論) 정열모(鄭烈模), 성음론(聲音論) 이탁(李鐸)·김선기(金善琪), 표준론(標準論) 심의린(沈宜麟), 문학사(文學史) 방중현(方鍾鉉), 시문(詩文) 이병기(李秉岐) 선생 등이 참여하였다.⁵⁴⁾ 한글문화보급회는 단순한 한글보급을 넘어 체계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강의 내용을 발전시키고 있다.

조선어학회 제3회 한글강습회부터는 한글문화보급회 주최로 진행되었다. 1945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되었는데, 고등부(高等部) 이외에 연구과(硏究科)를 선발하였다. 고등과 200명, 연구과 80명을 선발하여 고등과는 교동초등학교, 연구과는 종로 국민학교에서 진행되었다.⁵⁵⁾ 연구과는 고등부 연수를 한 사람들로 전문화시켰다.

한글문화보급회 주최로 제4회 한글강습회는 1945년 12월 10일부터 1주일간 종로 국민학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⁵⁶⁾ 사회고등부 한글강습회로

54) ‘한글講習會’, <新朝鮮報> 1945. 11. 3.

55) ‘제3회 한글강습’, <新朝鮮報> 1945. 11. 14.

56) ‘제4회 한글강습회’, <민중일보> 1945. 12. 8.

모집인원 200명으로 응모자격은 초등교원 및 중졸 이상의 관공서, 은행, 회사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강의료는 무료였고 단 연료비와 교재비는 실비였다.⁵⁷⁾ 또한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강습회를 1946년 1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였다.⁵⁸⁾ 한글강습회는 종교계에서도 발빠르게 수용하였다. 명동 천주교회는 한글문화보급회와 손잡고 1945년 10월 10일~13일까지 2시부터 3시간씩 4일간 천주교회 강당에서 한글강습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⁵⁹⁾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백양사 한글강습회가 개최되었다. 불교계에서도 한글강습회가 개최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백양사 사례가 유일한 듯하다.

해방 이후 만암은 백양사 승려 및 지역 청년들을 위한 한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서울 조선어학회로 승려를 파견하여 국어강사를 초청한 것으로 보인다.

위쪽에서 이상순(李商純) 스님이 걸어왔다. 스님은 서울 청진동 조선어학회로 국어강사를 초빙하러 왔던 적이 있다. 이희승(李熙昇) 조선어학회 교양간사의 소개로 나와 그때 처음 인사를 나눴다.⁶⁰⁾

이상순(李商純)은 만암의 제자 서옹(西翁, 1912~2003)이다. 이후 고불총림 방장으로 1974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한 인물이다. 백양사 주지 만암의 승인 아래 이상순이 서울 청진동 조선어학회를 찾았고, 간사 이희승의 소개로 국어강사 김민수를 만남으로써 백양사 한글강습회가 개설될 수 있었던 셈이다.

백양사 한글강습회는 1945년 11월 26일(월)부터 12월 9일(일)까지 2주간 합숙을 통해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간

57) '제4차 한글講習', <중앙신문> 1945. 12. 7.

58) '語學會主催 한글講習會', <大東新聞> 1945. 12. 29.

59) '한글講習會開催, 明治町天主教會主催', <대구시보> 1945. 10. 9.

60) 김민수, 「백양사 일기」, 1945. 11. 18.

에 10분씩 쉬는 일정이었다. 국어강사 김민수는 1945년 9월 11일 조선어학회 제1회 국어강습회 사범부를 수강하고, 9월 26일 국어강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하였고, 조선어학회 교양부 이희승 간사의 지시로 백양사에 파견되었던 것이다.⁶¹⁾ 조선어학회 이희승과 김민수는 이후 국어국문학 연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희승(李熙昇, 1897~1989)은 1942년 조선어학회사건으로 피검되어 해방될 때까지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경성대 교수로 있다가 1946년 학제개편으로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글맞춤법 강의』(1946)를 비롯하여 『조선어학논고(朝鮮語學論考)』(1947), 『초급국어 문법』(1949), 『국어학개설』(1955), 『국어대사전』(1961) 등을 발간하여 초창기 한글 연구를 이끌었다.

김민수(金敏洙, 1926~2018)는 강원도 홍천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이후 중앙대 강사를 거쳐 1955~1992년까지 고려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국어문법론연구』(1960), 『신국어학사(新國語學史)』(1964), 『국어문법론』(1971), 『북한의 국어연구』(1985),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4권)』(1991) 등의 저술을 통해 후진을 양성하였다.

김민수가 1945년 11월 12일(월) 서울에서 출발하여 이튿날인 13일(화) 저녁 백양사에 도착다. 백양사 한글강습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김민수가 도착한 지 열흘이 지난 1945년 11월 26일(월)부터였다. 김민수는 조선어학회 한글강습회를 마치고 12월 11일(화) 백양사를 떠날 때까지 1달 동안 ‘한글문화보급회 백양사분회’를 이끌었다.

그러나 김민수가 도착한 다음날인 11월 14일(수)에 36명의 <수강생 명단>이 작성되고 있다. 이는 백양사에서 한글강습회가 사전에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45년 11월 18일(일) 김민수의 백양사 일기에 “이번 강습회는 송만암 주지스님의 뜻을 받아 감사가 주관하는 듯 보였

61) 김민수, 「백양사 일기」, 1945. 11. 12.

다.”고 쓰고 있듯이 만암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한글강습회가 진행될 수 있었다. 당시 백양사 주지 만암의 뜻을 받들어 강습회를 주관한 것은 백양사 감사(監事) 정문학이었다. 정문학은 스스로 고등부 수강생 가운데 한 명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양사 한글강습회는 보통학교 졸업 정도를 ‘보통부’로, 중등학교 졸업 정도를 ‘고등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수강생 모집을 장성군청에서 발송하도록 하고 강습수료생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즉 조선어학회에서 군정청 학무국의 시험검정을 대행하는 만큼 도(道) 학무과에서 백양사 한글강습회에서 시험으로 선발한 수료생을 지역 강습회 국어강사와 같은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요지의 요청이었다. 이러한 선발 과정을 통해 강습회는 보통부 24명, 고등부 12명, 총 36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 <수강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⁶²⁾

▶ 고등부 : 12명

백양사 - 정문학 국덕신 이만홍 조종모	영광 불갑사 - 이광운
순창 구암사 - 김흥기	정읍 내장사 - 조기옥
담양 용흥사 - 차정묵	장성 사거리 - 김우홍 김락홍
장성 중평리 - 김동철	장성 약수리 - 임정태

▶ 보통부 : 24명

백양사 - 한정열 김남중 전복신 이상효 김행심 박혜경 강경화 임병옥	
부안 개암사 - 허재근 이성기 김형범	영광 불갑사 - 강갑선
고창 문수사 - 이법립	고창 상원사 - 박영구
순창 구암사 - 김홍용	고창 소요사 - 고성훈
장성 사거리 - 김락규 김용구	담양 가산리 - 김정채
장성 약수리 - 김영진 김기주 김봉수 김정상 송옥선	

62) 김민수, 「백양사 일기」, 1945. 11. 14.

한글강습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본사 백양사를 비롯한 말사의 승려들과 인근 마을 청년들이었다. 백양사 승려는 12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참여하였다. 즉 고등부 4명(정문학·국덕신·이만홍·조종모)과 보통부 8명(한정열·김남중·전복신·이상효·김행심·박해경·강경화·임병옥) 등이었다. 백양사 인근의 영광 불갑사, 순창 구암사, 정읍 내장사, 담양 용흥사 및 부안 개암사, 고창 문수사, 고창 상원사, 고창 소요사 등 8개 사찰의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백양사 인근의 마을 청년들의 참여라 할 수 있다. 인근의 사거리·중평리·약수리·가산리의 청년들은 고등부 4명, 보통부 8명 등 모두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 비구니와 마을 여성 등 5명 이상의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백양사가 인근 지역에서 갖는 영향력과 역할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백양사 한글강습회 교과서는 조선어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1945년 9월, 11판)을 주로 하고, 최현배의 <한글의 바른 길>(1945년판)을 보충용으로 활용하였다. 『한글의 바른길』은 1937년 초판이 나오고 해방 직후인 1945년 정음사에서 다시 간행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책은 서울에 있는 조선어학회에 서면으로 부탁하여 사람을 시켜 가져온 것이다.

서울에서 한글문화보급회가 조직되고 난 뒤 도 단위에서 지회가 만들어졌다. 1945년 11월 이전에 한글문화보급회 전남지회가 결성되었고, 다시 한글문화보급회 백양사 분회가 조직되면서 이를 통해 백양사 한글강습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글문화보급회 백양사 분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양사 주지 만암 스님의 인가와 후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백양사 한글강습회가 개강하기 전에 강사 김민수와 혜화전문 출신인 백양사 이만홍 스님과 나눈 대화가 주목된다. 한글문화보급회 백양사 분회의 한글강습회를 상설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국사과, 불교과, 영어과 등을 개설하자는 논의였다. 또한 강사 김민수는 전남도청 학무과 담당자

(이혁)와 교섭하여 백양사 한글강습회를 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광학교 설립에 대한 단초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한편 백양사 한글강습회가 진행되기 전인 1945년 11월 14일(수) 장성 청년단(長城靑年團) 주최로 ‘해방축하 기념공연’이 백양사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백양사 만세루(우화루)에서 열렸다. 며칠 뒤인 1945년 11월 19일(월)부터 1주일 동안 백양사 향적전에서 지역 청년들의 주도로 ‘사회과학강습회’도 열렸다. 사회과학강습회 첫날 ‘북하청년동맹(北下靑年同盟)’ 결성식이 거행되었는데, 장성군 북하면 면단위 청년단체가 백양사에서 조직된 것이다. 사회과학강습회가 개최되고 청년동맹이 결성되고 청년단 주최로 해방축하 기념 공연으로 연극이 상연되는 등 해방 직후 지역사회와 백양사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서 백양사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며 만암을 비롯한 백양사 승려들의 열린 자세와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 청년들의 1주일간 사회과학강습회가 끝나자마자 11월 26일(월) 한글강습회 개강식이 열렸고, 이튿날 27일(화)부터 본격적인 강습회가 시작되었고, 12월 10일(월) 졸업식이 거행되었던 것이다. 1945년 11월부터 실시된 백양사 한글강습회는 해방된 조국의 현실에서 불교계가 보인 가장 빠른 대응 가운데 하나였다. 이는 만암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2. 정광중학교 설립

정광학원은 만암 스님이 발기하여 성립된 호남지역 유일의 불교 종립 학교이다.

정광학원은 불교 종립 재단이다. 만암 송종헌 대종사께서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민족교육을 제창하시고, 백양사 내에 광성학숙을 설립하시

어 우리 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쳐서 민족정신과 민족정기를 일깨우셨다. 해방 후에 만암 큰스님의 발의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5대 종찰의 출현과 협조로 부처님의 말씀과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광학원을 설립 하셨다. 참나를 발견하여 자비심으로 보살도를 실천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착하고 바르게 살면서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실현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건학이념을 두고 있다.⁶³⁾

2009년 정광중고등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성명서를 통해 학교 교사들이 갖는 정광학교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암 스님에 대한 자부심과 호남지역 5대 사찰의 출현에 대한 의의, 그리고 불교종립학교로서의 이상과 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 정광학교의 역사에서 만암 스님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백양사 한글강습회가 1945년 12월 10일(월) 졸업식을 거행한 뒤 1달 뒤인 1946년 1월 10일 만암 송종헌은 학교 설립을 발기하였다. 만암 송종헌의 발의로 전라도 5대 본사(백양사, 대흥사, 선암사, 화엄사, 송광사)의 토지 출현(108,876평)으로 법인 및 중학교 설립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최태종과 신지정 등 당시 젊은 승려들의 역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태종 등이 해방 당시 만암 스님에게 백양사 재산을 절반을 들여 사회사업, 즉 교육 사업을 하자고 간청했다는 사실이다.

신지정 동지와 함께 송만암 스님에게 백양사 재산의 절반을 들여 사회사업(교육사업)을 하자고 간청했다. 그러나 절집에서는 앞문 돌쩌귀를 뒷문에 옮겨 박아도 죄가 된다는 사상이 지배하기에 선뜻 용납될 리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3회에 걸쳐 간청하다가 “네 놈들이 무엇이 잘났다고 천 년을 지켜오던 선사스님의 피땀어린 재산을 절반이나 털어내라는 것이냐”라며 주장자를 휘둘렀다.⁶⁴⁾

63) ‘성명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광중분회·정광고분회, 2009년 2월 27일

이는 만암 스님이 젊은 승려들의 사회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대목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만암 스님의 처지에서 보면 젊은 승려들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나,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여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태종과 신지정 등은 목포로 나아가 1945년 10월 목포청년회와 목포문화동지회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던 일본인 사원 동본원사(東本願寺)를 확보하였다. 이곳이 정광사가 되었다. 이렇게 확보한 사찰에서 한글강습소를 열었으나 인쇄비와 강사료 등 운영자금이 필요하였고, 백양사 만암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백양사에 갔던 신지정 동지가 약간의 자금을 가져와서 강습소를 계속 운영하던 중 46년 1월경 송만암 스님으로부터 오라는 기별을 받고 갔더니, 친은사·화엄사·선암사·송광사·대흥사 주지에게 보내는 서신을 주면서, “목포 사원에다 학교를 설립하자는 회의 소집 통지서이니, 주지를 잘 설득하여 2월 회의에 참석토록 하라”는 것이었다.⁶⁵⁾

만암 스님의 발기로 인하여 호남지역의 5대 본산과 친은사를 포함한 6개 주요 사찰에 의한 학교설립 움직임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에 최태종은 눈 속을 걸어서 각 사찰을 돌며 학교설립의 취지를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46년 2월 첫 1차 회의에 백양·친은·화엄·선암사 등 4개 사찰이 참석하였다. 송광사·대흥사는 불참하였으나, 학교 설립을 결의하고 바로 학생 모집에 착수하여 1946년 3월 1일 목포시 무안동 3번지 정광사에서 정광중학교를 개교하였던 것이다. 정광사는 목포 일본인 동본원사를 접수하여 이곳에서 역사적 개교를 한 것이었다. 이후 대흥사 총무 조희순과 회담을 통해 제3차 회의에 비로소

64) '생애 회상', 月下文集 刊行委員會, 『月下 崔泰鍾 大宗師 月下文集』, 1999, p.437.

65) '생애 회상', 월하문집간행위원회, 『월하 최태종 대종사 月下文集』, 1999, p.438.

대흥사가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송광사는 이 시점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46년 9월 24일 3년제 중학교 인가(문교부)를 받고 중학교 초대 교장으로 만암(송중헌) 스님이 추대되었다. 이에 대흥사를 대표하여 허인용을 교무주임으로 결정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목포에서 2년간 학교를 경영하다가 학급 증설로 교사를 신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송광사 측에서 중앙지로 학교를 옮기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득이 1948년 2월 현 광주 송정리로 이전을 결정하였다. 송광사의 처지에서 보면 목포는 전남의 바닷가 쪽의 변방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송광사가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교사 신축을 결정하였다.

한편 당시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출신의 박재철(朴在喆)은 우수영(右水營)국민학교 고등과 1년을 수료하고 1947년 9월 정광중학교 1학년으로 편입하였다. 박재철은 법정(法頂) 스님의 출가전 속명이다. 이듬해 1948년 광주 송정리로 학교가 옮겨가게 되면서 목포상업학교로 전학을 한 것으로 보인다.⁶⁶⁾

1948년 3월 1일 목포에서 전남 광산군 송정읍 선암리 1번지로 학교를 이전하였다. 이는 송광사의 영향력이기도 하지만 광산군의 유지였던 정순조(鄭純朝)의 수완과 역할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⁶⁷⁾ “南中の 여러 사찰에서 정광학교를 이곳으로 옮겼으니 더욱이 공의 탁월한 수완이다.”라는 글귀가 그것이다. 정순조(鄭純朝, 1888~?)는 경남 동래 출생으로 부산상업학교 제1회 졸업 후 전남 법성포 금융조합 이사, 1921년 남선흥업회사 지배인을 맡았다. 이후 조선주 양조업을 자영하며 부를 축적하여 이후 송정읍의원, 송정상공회장, 공업학교 후원회장, 본동수리조합장, 호남선 송정노동조합장, 광주곡자회사 및 조선임업회사 대표 등을 역임하였다.

66) ‘법정스님, 목포서 불교종립 정광중 다녔다’, <불교신문> 2019. 6. 12.

67) ‘東愚鄭純朝先生紀功碑’, 『雜著』, 『曼庵文集』, pp.291-292.

해방 후 국민회 광산군 지부장, 전남도 주조조합연합회장, 제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한편 정광학교가 목포에서 광주로 이전할 때 신지정은 사찰 관리 때문에 목포에 남았고, 최태중·허인용·김재윤·최말진 등이 정광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 이에 광주 송정리에 1948년 5월 5일 기공식을 갖고, 공사에 착수하여 1949년 4월 26일 재단법인 정광학원으로 인가받았다. 초대 이사장은 만암 송종헌 스님이었다. 그리고 1949년 5월 5일 상량식을 거쳐 교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었다.

설립자 만암 스님을 대신하여 몇 명이 교육과 교사 신축 및 각 사찰 연락업무로 바쁜 나날이었다. 그러나 공사 착공 후 몇 개월 안에 여순반란사건으로 인해 각사 연락이 두절되고 각 사찰 기금조성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건축 자재 반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사 신축공사는 정지상태였다. 더욱이 이러한 일련의 정치적 사태에 따라 물가는 몇 배로 앙등되는 상황이어서 애초 1천만원의 예산으로는 태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다시 각 사찰에 분담금이 할당되고 1950년 6월 총 공사비 3천만원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새로운 교사로 목조 단층의 12개 교실을 마무리 천장공사를 빼고 거의 완공단계에서 6.25전쟁을 겪게 되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천정공사를 준비하면서 쌓아 두었던 목재 수십만재는 방공호 구축 자재로 사용되었고, 장성역에 출하된 벽돌 3만여 장은 인민군의 포대 구축용으로 사용되었다. 더욱이 학교 교사는 인민군 수용소(훈련장)로 활용되었고, 연이은 사격과 포격으로 교사는 96개소가 파괴되었다. 얼마 뒤 수복은 되었으나 학생들과 교사들이 흩어지고 교사가 파괴된 상태에서 최태중은 건설업자를 교섭하여 외상으로 교사를 수리하고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전쟁 중 ‘학생등교독려반’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지만 학생수는 전쟁전의 1/3수준에 불과하였다.⁶⁸⁾

68) 「정광중·고교 낙성식 경과보고」, 『月下文集』, 1999, pp.314-315.

전쟁 직전인 1950년 5월 27일 학제개편으로 중학교 4년제로 인가되었고, 1951년 9월 1일 고등학교를 개교하여 초대 교장으로 기산(임석진) 스님이 취임하였다. 즉 1951년 전남교원 재단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교장으로 임기산 스님을 모시고 동시에 김보산 스님이 사업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전남 광주지역의 본산인 송광사가 본격적으로 학교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는 백양사 만암 스님이 자연스럽게 정광 학교 사업에서 후배들에게 맡기고 송광사를 중심으로 교육 사업을 재편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만암 스님은 1952년 조계종 제3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불교계를 대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1952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교사를 일부 수리하고 일부 자재를 구입하여 1953년 7월 90만환의 예산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약 4개월간 목수, 토수 20여 명을 투입하여 1953년 8월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렇듯 빠르게 전후복구를 마치고 학교는 정상화되었다.

한편 1955년 8월 25일 정광중학교 제3대 교장으로 최태종 선생이 취임하였다. 백양사 만암 스님의 입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만암 스님은 입적하였다.

호남지역의 유일한 불교종립학교인 정광중고등학교는 이렇게 만암 송종헌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되었고,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을 통해 현재 안정적인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⁶⁹⁾

69) 정광학교는 1987년 8월 선암리 1번지에서 현재의 소촌리 815번지로 신축 이전하였다. 현재 대지 총 48,037㎡에 어학실, 컴퓨터실, 방송실, 생활관, 체육관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학교 곳곳에는 학교 역사와 함께 사찰 소개 등 다양한 계시물이 있어 불교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교육도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VII. 결론

만암 송종헌은 근대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종정을 역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양사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다. 이러한 만암 송종헌의 불교계에서 위상과 역할 가운데 하나가 교육사업과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1926년-필자) 겨울동안 나는 전라남도 장성군에 있는 선교양종 대본산 백양사를 巡禮하야 본일이 있다. 當寺의 淸衆은 住持 宋曼庵 和尚의 道率下에 在하야 和合一致되야 공동심력으로써 一大 伽藍 法堂 寮舍 其他를 一新建築하야노코 그 淸規를 직힘에는 朝夕禮佛, 一堂會食뿐만 아니라 비록 小沙彌일지라도 法衣를 입지안코는 朝夕供養에 參與을 不許하며 工課를 함에는 晝參夜參의 禪風과 四敎大敎의 講規를 엄격으로 행함을 보고 나는 심중에 실지소견이 표면 소문과 상이함을 느꼈다. 그리고 조선 각사가 이와 가튼 풍류를 직히는 줄을 알겠다.⁷⁰⁾

1926년 백양사를 방문한 이능화가 “工課를 함에는 晝參夜參의 禪風과 四敎大敎의 講規를 엄격으로 행함”을 보고 만암 스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있는 내용이다. 만암 송종헌의 그것은 내외의 제반 교무를 총괄하면서도 일상의 행사는 수양하던 때와 같이 추호도 다름없이 행지(行持)가 견고하여 항상 사위(四圍)의 외경(畏敬)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만암의 교육활동 역시 그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상적 생활과 교육적 태도와 활동을 일치시키는 삶이었다는 점이다. 만암은 1910년 백양사에 근대적 학교인 광성의숙을 설치하여 운영한 이래 1928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 1930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일제강점기 불교교육사에 큰 족적

70) 李能和, 「朝鮮佛敎의 三時代」, 『佛敎』 31호, 1927. 1, p.11.

을 남겼다.

첫째, 백양사 광성의숙을 통해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였다. 광성의숙 제 1회 졸업생들은 백양사를 대표하여 중앙학림에 유학생으로 차례로 선발되어 유학함으로써 이후 백양사를 대표하는 승려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이후 백양사 포교사로 성장하여 백양사의 포교당 건립과 포교역량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둘째, 백양사 주지로 중앙불교계에 진출하여 교학과 학술 부문에서 활약하면서 불교계 최고학부인 불교전수학교와 불교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여 불교발전에 기여하였다. 교장 취임은 만암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불교전수학교와 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1928년 4월부터 1931년 4월까지 3년간 한국근대 불교교육사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대를 이끌었다. 만암은 불교전문학교 승격을 이끌었고 교지 발간 등 학교 발전의 내실을 다지며 1931년 불교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 24명의 ‘이구오팔회(二九五八會)’와 사제시간으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셋째, 해방 후 주도적으로 1945년 11월 백양사 한글강습회를 개설하여 승려 및 지역민들에게 한글교육을 시켰다. 백양사 한글강습회는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만암 스님의 혜량과 역량에 기댄 사업이었고 이를 통해 상설 교육기관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가져왔다.

넷째, 만암의 발의로 호남지역 본사들을 중심으로 한 연합적인 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에 옮겨 1946년 정광중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한글강습소의 상설 교육기관에 대한 논의와 인식의 변화는 이후 정광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상과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오게 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정광중학교는 정광중고등학교로 발전하여 호남불교의 중심적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만암 스스로 공(公)을 위해 살아왔음을 자부하고 있다. 1950년 스스로 쓴 약력의 내용이다.

그러나 평생토록 처리해 온 일은 공을 위해 온 힘을 다 쏟았을 따름이요. 털끝만큼도 자신을 위해 영리를 도모한 일이 없으니 이것이 불행한 가운데 한 가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⁷¹⁾

평생을 털끝만큼도 자신을 위해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한 인간을 존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과 관련한 활동과 교육의 목표가 또한 그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公)을 위한 삶,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이 또한 아니겠는가?

만암 송종현 만큼 한국 근대불교계에서 교육활동으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도 드물다 할 것이다.

71) ‘자서약력’, 『曼庵文集』, 1997, p.257.

참고문헌

- <東亞日報>, <朝鮮日報>, <每日申報>
<新朝鮮報>, <大東新聞>, <民衆日報>, <中央新聞>, <大邱時報>
<불교신문>
『불교평론』
『三千里』, 『佛敎』, 『一光』, 『佛敎振興會月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中樞院, 『白羊寺寺院土地建物等臺帳』, 1916.
『財團法人 朝鮮佛敎中央敎務院 第13回 定期評議員會會錄』, 1935.
靑柳綱太郎, 『朝鮮宗敎史』, 1911.
『曼庵文集』, 백양사 고불총림, 1997.
『月下文集』, 월하문집간행위원회, 1999.
『東大七十年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1.
『普成百年史』, 보성중고등학교, 2006.
이정식·김학준, 『혁명가들의 항일희상』, 민음사, 1988.
님 웨일즈·김산, 『아리랑』, 동녘, 2013.
김민수, 「백양사 일기」, 1945. 11. 12~12. 11.
김광식, 「二九五八會考」,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민족사, 1998.
김광식, 「일제하 불교계의 普成高普 경영」,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김광식, 「만암의 禪農一致 사상」, 『한국선학』 30, 2011.
김광식, 「만암의 불교정화관」, 『선문화연구』 14, 2013.
김상영, 「曼庵 宗憲의 생애와 활동 - 1927년까지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각사상』 19, 2013.
김성연, 『일제하 불교 종단의 형성과정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18.
김순석, 「해방공간 불교계의 과제와 만암 송종현의 ‘불교계 정화인식」, 『태동고전연구』 27, 2011.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의 강화 전통과 白羊寺 강원의 역사」, 『불교학연구』 25, 2010.

손엄홍, 「1920년대 중국지역에서 전개한 김성숙의 민족혁명과 사회주의운동」,
『운암 김성숙의 생애와 사상』, 선인, 2013.

한동민, 『‘寺刹令’ 體制下 本山制度 研究』, 중앙대 박사학위 논문, 2006.

Abstract

Modern Buddhist Circle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Manam Song Jong-heon

Han, Dong-min
(Director of Suwon Hwasung Museum)

Manam Song Jong-heon was a high priest who represents modern Korean Buddhist circle. He served as the head of the Jogye Order, which is representative of Korean Buddhism. He is revered as a figure who revived Baegyangsa (Temple). One of his remarkable achievements and roles in Korean Buddhism is his Buddhist educational work.

Manam Song Jong-heon founded and managed Gwangseongeuisuk, a modern school at Baegyangsa in 1910. At that time, a chief Buddhist monk was Kim Hwanung, but Manam Song Jong-heon substantially led the education course as a vice principal. Gwangseongeuisuk was operat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but it produced people who had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Baegyangsa. Those graduates were the driving forces that made Baegyangsa modern.

Also, after Manam Song Jong-heon became the chief Buddhist monk of Baegyangsa in 1916, he led the temple for 20 years and worked as a representative Buddhist monk of central Buddhist circle. In particular, he served as an educational leader in Buddhist circle under Japanese colonial era. This indicates that his status and role had such strengths in academic and educational aspects. Afterward, the strengths made him to assume the principal of the School to Teach Buddhism. As the principal,

he publicized the school's status by leading the promotion to the School to Teach Buddhism and publishing school magazine called "Il-gwang" and so on. He made the school to a college representing Korea through well-operated school system. He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social role of Buddhism by opposing to hand over Bo-seong High School—operated by Buddhism—to another foundation.

After liberation from Japan, he opened a Hangeul (Korean alphabet) class. This was one of the quickest actions during liberation space. He figured out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permanent educational institution through the Hangeul class. This experience of the class ended up establishing schools. In other words, Jeong Gwang Middle School was established in Mokpo in March 1946 thanks to major temples in Honam Area after his suggestion. Then it moved to Songjeong-ri, Gwangju and promoted to Jeong Gwang Middle & High School. Manam Song Jong-heon's educational activiti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circles.

Key words

Manam Song Jong-heon, Baegyangsa Gwangseongeuisuk, School to Teach Buddhism, Bo-seong High School, Hangeul class, Jeong Gwang Middle School